



지난해 11월 광주시 광산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윤상원가’ 시연회 모습. <광산문화예술회관 제공>



청년 판소리꾼, 윤상원이 꿈꾼 세상 노래한다

창작극 ‘윤상원가’ 2월2일 공연 이달 말까지 무료 관람 신청

처절했던 광주의 오월을 기록하고 알리며 시대를 부활시킨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은 창작판소리 ‘윤상원가(歌)’가 오는 2월2일 오후 7시 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윤상원가(歌)’는 5·18 항쟁 지도부의 시민군 대변인으로 활동한 윤상원 열사의 이야기를 판소리로 창작한 작품이다.

윤상원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광산구와 (사)윤상원기념사업회가 기획한 이번 작품은 윤상원 열사와 함께 항쟁에 참여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광산구와 (사)윤상원기념사업회는 30살에 세상을 떠난 윤상원을 좀더 생생하게 표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0~35세 젊은 소리꾼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청년 판소리꾼은 지난해 11월 ‘윤상원가’의 핵심 부분을 선보였던 ‘눈대목’ 시연회에 출연해 공연의 일부를 무대에 올렸다.

윤상원 열사는 광주시 광산구 임곡에서 태어나 노동자 야학인 ‘들불야학’에서 활동하다가 5·18 민중항쟁이 일어나자 계엄군에 맞서 마지막까지 도전을 사수하며 장렬히 산화한 인물이다.

윤상원의 벗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심청가’ 이수자인 임진택이 사설과 작창을 맡았다. 민중문화운동 1세대

인 임진택은 5·18 민중항쟁 10주년이 되던 1999년, 황석영 작가의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를 원전으로 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의 항쟁을 판소리로 풀어낸 ‘오월광주’를 만든 바 있다.

이번 공연은 지난해 11월 시연회 이후 전문가 및 시민들 의견을 수렴해 무대 및 영상보완 등을 반영했다.

공연은 1부 ‘소리꾼 윤상원’의 ‘윤상원의 학창시절과 유신시대’, ‘인생의 갈림길-취직이나 운동이나?’, ‘박기순과의 만남과 헤어짐-들불야학’, ‘들불야학, 시련과 재건’ 등이 이어진다. 이후 2부 ‘시민군 윤상원’은 ‘민족민주화대성회와 5·18의 발발(勃發)’, ‘광주시민 봉기와 도청 탈

환’, ‘해방광주-민주수호 범시민결기대회’, ‘투쟁(鬪爭)이나 투항(投降)이나-항쟁지도부 결성’,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임진택의 농익은 소리, 구수한 아니리와 함께 5명의 청년소리꾼 이재학, 정소정, 함승우, 송은영, 안지영 등이 출연해 패기 넘치는 소리를 선보일 예정이다.

고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고법 전수조교 박시양이 맡는다. 광주의 ‘오월’ 이야기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관람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광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960-8989, 062-234-112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금호아시아나재단, 클래식 유망주 3인 선정

금호아시아나문화재단은 올해 주목해야 할 클래식 유망주로 첼리스트 제임스 김, 피아니스트 신창용,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등 3명을 선정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중반의 차세대 연주자를 소개하기 위해 2004년 시작된 이 시리즈를 통해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김재영·이지혜, 피아니스트 김선욱·선우예린·김태형·손정범, 플루티스트 조성현, 오보이스트 함경 등 유명 연주자들이 성장해왔다.

제임스 김(25)은 2006년 헝가리 다비드포르 국제첼로콩쿠르에서 1위를 하며 국제무대에 데뷔했다. 링컨센터 체임버 뮤직 소사이어티 등 미국과 유럽의 클래식 무대에서 주로 연주해왔다.

2016년 미국 힐튼 헤드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한 피아니스트 신창용(24)은 로체스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샌다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등 유수의 오케스트라와 협연한 바 있으며 현재 커티스 음악원을 거쳐 줄리아드 음악원의 석사과정을 밟고 있다.



첼리스트 제임스 김



피아니스트 신창용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

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계희(25)는 2016년 루마니아에서 열린 제오르제 에네스쿠 국제 음악 콩쿠르를 우승했으며 2016년 토

론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2위 및 바흐 특별상, 작년 무네츠구 앤젤 바이올린 콩쿠르의 1위 등 굵직한 대회를 휩쓸고 있다.

/연합뉴스

구름처럼 변주 거듭하는 시의 상상력

최인숙 시집 ‘구름이 지나가는 오후의 상상’ 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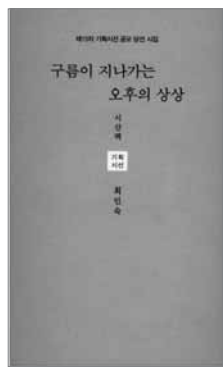
시라는 장르는 무한한 상상력을 기반으로 한다. 비유와 이미지, 감각 등을 매개로 풍성한 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 시가 지닌 장점이다.

시인들이 저마다 나름의 개성을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장르가 지닌 특징에서 연유한다.

계간 ‘시산맥’ 기획시선 공모에 당선된 최인숙 시인의 ‘구름이 지나가는 오후의 상상’(사진)이 발간됐다.

‘베어링’, ‘팔호의 감정’, ‘레모네이드’, ‘페인트’, ‘달고나’, ‘곡괭이’, ‘팝콘’ 등 다양한 소재의 작품들은 무한한 상상력이 빚어낸 수채화에 다름 아니다. 시집의 제목처럼 다양한 시편은 무지개빛깔처럼 스펙트럼이 넓다.

“웅크린 자세를 배웁니다/ 어쩔 수 없는 마음을 자르고 말입니다/ 맹수의



이빨이라도 순하게 길들일 준비 또한 되어 있습니다/ 햇빛에 비틀거리던 거리를 그림 속에 가두고 싶습니까/ 트렁크를 열면 쏘나기가 쏟아집니다”(‘구름이 지나가는 오후의 상상’ 중에서)

표제시 ‘구름이 지나가는 오후의 상상’은 화자의 눈에 비친 구름을 자유자재로 형상화하고 있다. 눈에 비치는 물리적인 구름은 다양한 변주를 거듭하며 기발한 상상의 모티브가 된다.

유정이 시인은 해설에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는 그 순간엔 잠시 주어진 현실과 우리되는 시간이다”며 “그것이 휴식을 위한 것이든 이탈을 위한 것이든 그 순간만큼은 잠시 “관계자”가 아닌 독립적 자아로 존재한다”고 평한다.

한편 최인숙 시인은 가톨릭대학교를 졸업했으며 중앙대 예술대학원 문장학과를 수료했다. 2012년 경상일보 신춘문예에 시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으며 시집 ‘보고 싶다는 말처럼 아픈 말은 없다’를 펴냈다.

/박성천기자 skypark@

유·스퀘어 문화관 ‘VR MAX’ 운영

유·스퀘어 문화관이 오는 5월31일까지 동산아트홀에서 VR테마파크인 ‘VR MAX’를 운영한다.

유·스퀘어 문화관 ‘VR MAX’는 100평 규모의 실내 놀이공간이다. 20여 종의 VR 체험기기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VR게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VR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VR게임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며 게임을 하는 장치로, 가상현실 속에서 여러 가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유·스퀘어 문화관은 VR 게임의 대

표적 아이템인 방 탈출게임, 사격게임, 탄광 열차 코스트 가상현실 체험장치인 롤러코스터, 퓨처바이크와 드론을 직접 띄워볼 수 있는 드론 시뮬레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도입했다.

특히, 스릴 라이더 체험장치로 우주에서 펼쳐지는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우주전쟁과 3축 서브모터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패러글라이딩 활공 시 구현되는 움직임을 재현한 패러글라이딩 코스는 활동적인 재미를 더해 체험자에게 극강의 몰입감과 긴장감을 선사한다.

문의 062-360-8433.

/전문기자 ej6621@kwangju.co.kr

‘한일포토콘테스트’ 다음 달까지 온라인 접수

사진을 통해 한국과 일본 양국민의 교류를 꾀하는 한일포토콘테스트가 올해도 개최된다.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은 양국 행정기관, 기업과 협력해 제4회 한일포토콘테스트를 연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 국적자는 ‘일본의 매력’을, 일본 국적자는 ‘한국의 매력’을 주제로 한 사진을 2월 28일까지 온라인(ht-

tp : //kjphotocon.org)으로 출품하면 된다.

수상작은 3월 14일에 발표되며 같은 달 30일부터 4월 13일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에 전시된다. 이 공모전은 양국 문화 교류, 인적 교류의 촉진과 관광 진흥 등을 목적으로 2014년 처음 개최됐으며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문의 02-765-3011./연합뉴스

오티콘코리아 광주직영점

“서울 본사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보세요”

- 정부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 보조금전용 보청기
- 보청기 테스트 & 청력테스트
- 무료 가정 방문서비스

오티콘보청기 광주지사
농성역 또는 화정역 4번 출구에서
100m 가량 직진 후, 1층(102호)

062-364-8800

오픈 1주년
기념 이벤트
지금 연락주세요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오페라지 패턴키랄프로그래밍을 만나보세요

Step 1. 방수장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5분 이상 불로 가열해도 불이 시트를 타고
번져 들어가지 않는 실험 동영상 캡처

*실제시공현장
충북 옥천문화원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제 패던디자인이나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린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후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안벽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시공사례

상명대학교/광명군보전소/대전대학교/태백시보전소
안성시립도서관/강화군청/민계군청/부천시청

충북문화센터 옥상시공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